

이통사, 보조금 대신 단말기 가격 인하로 '우회'

불법 보조금 영업정지 여파 고객들 가입 미뿔 KT, 최대 50% 내려...팬택·LG도 인하 경쟁

지난 27일부터 단독으로 영업재개한 KT가 다양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로 영업정지 기간의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의 고객 유치 전략이 보조금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바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통사들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KT는 27일 전용 기종인 '갤럭시S4 미니' 가격을 기존 출고가의 절반인 25만96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가 정한 한도(27만원) 안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또 최근 가격 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는 팬택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기도 이달 초 인하할 계획이다. 여기에 LG전자와 옵티머스GK 모델에 대한 추가 가격 인하 문제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휴대단말 가격 인하 경쟁은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 현재는 협상 결렬로 판매가 잠정 중단됐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달18일 팬택 베가시크릿업 모델의 출고가를 95만48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낮췄다.

KT와 LG유플러스의 이런 방침에 따라 SK텔레콤도 조만간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가격 인하와 맞물려 기기 변경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KT는 휴대전화 구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납부한 누적 기본료가 70만원을 넘으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반납을 조건으로 남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할부금과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스핀지' 플랜 요금제를 새롭게 내놨다.

LG유플러스는 20일 단말기를 24개월 이상 사용 중인 고객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LTE8무한대80'이나 'LTE무한 85'로 갈아타

면 기준 1만8000원 할인에 1만5000원을 추가 할 인해주는 '장기고객 대박 할인'을 선보였다.

이통사들이 이처럼 단말기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은 영업정지로 과거처럼 불법 보조금을 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로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인식 탓에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가입을 미루면서 이통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원인이다.

소비자에게는 이러한 단말기 가격 인하가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특정 판매 채널에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위 '스팟성 보조금'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단말기 구매비용 감소로 가계 통신비 지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 보조금 경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설 기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은 마케팅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데다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정부 감시와 단속이 심해 부담이 크다"면서 "하지만 출고가가 인하되면 불법 행위 없이도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만큼 고객 혜택 차별화에 집중할 수 있어 1석2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G U+, SKT 제쳤다 1인당 평균 매출 첫 추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ARPU) 1위 기록이 LG유플러스에 의해 처음으로 깨졌다.

최근 KT의 시장점유율 30%가 처음으로 무너진 데 이어 ARPU 순위도 뒤바뀌면서 이통 시장의 구조 변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 29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ARPU가 지난해 0분기 대비 4.9% 증가한 3만5309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분기인 2013년 4분기(3만5650원)보다는 1.0%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며 전년 LG유플러스가 발표한 1분기 ARPU 3만5362원보다도 50원 적은 액수다. 이로써 수년째 ARPU 1위를 기록했던 SK텔레콤의 기록이 깨졌다. LTE 서비스가 시작된 2011년 이후로 SKT는 줄곧 ARPU 1위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까지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ARPU는 5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

노키아 휴대폰 역사 속으로...

MS "새 브랜드 검토"

1990년대를 호령하던 노키아 휴대전화 브랜드가 퇴출의 길을 밟게 됐다.

노키아 휴대전화 인수를 끝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장기적으로 새 스마트폰 제품군에서 노키아라는 이름을 빼기로 했다고 독일 dpa통신과 IT(정보기술) 전문매체 씨넷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키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스티븐 엘롭 MS 부사장은 이날 한 온라인 포럼에서 "새 스마트폰 브랜드에 대한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엘롭 부사장은 새 브랜드에 대해 "너무(새 브랜드와 관련된) 말들이 많다"면서 언급을 자제했다.

MS는 최근 70억 달러 규모의 노키아

휴대전화 부분 인수를 끝냈다. 엘롭 부사장은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의 명칭이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로 바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인수 과정에서 기술적 필요로 쓴 명칭"이라면서 부인했다.

노키아 브랜드는 그러나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통신 장비와 지도 소프트웨어 등 MS가 인수하지 않은 모회사 노키아의 사업 부문은 여전히 노키아 상표명을 쓰기 때문이다.

노키아 휴대전화 브랜드는 1992년 처음 등장했다.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은 1998년부터 14년 동안 세계 판매량 1위를 지키면서 미국 핀란드의 대표 '아이콘'이 됐지만 고급 스마트폰 경쟁에서 애플과 삼성에 밀리면서 위상이 급락했다.



폰? 카메라?

삼성, 10배줌 스마트폰 공개

삼성전자가 광학 10배 줌(Zoom)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싱가포르 레드닷 디자인 박람회에서 '삼성 미디어 데이'를 열고 카메라에 특화된 스마트폰 갤럭시K를 소개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임에도 첨단 카메라 기능을 대거 탑재해 최고급 카메라에 버금가는 고품질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특징이다.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2070만 화소 BSI CMOS 센서를 장착했고, LED보다 밝은 제논(Xenon) 플래시와 광학식손떨림보정(OIS) 기능도 달았다. 또 사용자의 촬영 환경에 따라 노출과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 적합한 촬영 모드를 제안해주는 프로 서제스트(Pro Suggest) 기능을 지원한다. 자가촬영(셀카) 사진을 찍을 때 원하는 영역에 얼굴이 오면 알려주는 기능도 탑재했다.

유료 앱, 요금 폭탄 막는다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 의무화

스마트폰의 '앱 장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려면 앞으로 무조건 비밀번호를 설정·입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앱 장터 사업자, 앱 개발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과 함께 앱 장터에서의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설정·입력 의무화 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지만 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 앱 장터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 또 비밀번호 기능이 있지만 환경메뉴에 들어가 별도

로 설정해야 해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비밀번호 없이 앱 장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 등의 무분별한 다운로드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접수된 앱 결제 관련 민원 2638건 중 미성년자 사용으로 인한 건수가 50%에 이르는 1322건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앱 장터를 이용할 때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이달 중 시행하고, 다른 국내 앱 장터는 관련 시스템 개발·구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골프, 등산, 술... 이제 걱정 끝!!!

지친 당신에게 권합니다.



출시에정

제품명 : 간면에 식품의유형 : 다류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 황칠추출물(100%)
 제조원 : 황칠다남(주) 판매원 : 황칠나라유통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51-3 고객센터센터 : 061864-5788 부장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품, 판매처는 고객센터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고객센터 **061 864 5788**
www.hcnara.co.kr